



예거 르쿨트르, 새로운 글로벌 앰버서더 로버트 패틴슨 발표

KEY FACTS:

- 현대 영화계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배우와 예거 르쿨트르의 만남
- 창의성, 현대성,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장인 정신을 향한 공통된 열정

예거 르쿨트르가 영국 배우 로버트 패틴슨을 새로운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했다. 이번 특별한 파트너십은 정밀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을 향한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끊임없는 여정과 로버트 패틴슨의 독보적인 재능, 예술적 감각, 그리고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연결한다.

파인 워치메이킹과 기계식 타임피스에 담긴 예술성을 사랑해온 로버트 패틴슨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다.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오브제는 그 안에 진정한 깊이를 지닌 것들입니다. 훌륭한 시계는 단순히 정확함 그뿐만 아니라, 고유한 개성과 장인 정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담긴 이야기를 아우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언제나 이러한 절제된 숙련미를 상징해왔습니다. 메종의 모든 작품에는 기술적 혁신과 예술적 표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큰 영감을 받으며, 제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영화계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존재

로버트 패틴슨은 대담한 예술적 선택과 세상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바탕으로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커리어를 만들어왔다. 예측 가능한 행보보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온 여정이다. 작가주의 영화와 대규모 글로벌 프로덕션을 넘나들며,



로버트 패틴슨은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연기에 대한 깊이 있고 섬세한 접근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커리어를 이어왔다. 도전적인 역할에 매료되어온 그는 각각의 캐릭터에 깊이와 미스터리, 팽팽한 감정적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과장된 표현 대신 절제를 통해 인물의 복합적인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변화를 향한 이러한 본능은 약 2 세기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에 뿌리를 두면서도 혁신과 기술적 숙련을 통해 스스로를 재창조해온 예거 르쿨트르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 이는 정밀함을 고정된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정의해나가는 접근 방식이다.

현대적인 우아함

로버트 패틴슨은 본능적이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세련된 우아함을 보여준다. 스크린 안팎에서 드러나는 그의 존재감에는 뚜렷한 개성과 절제된 자신감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그의 스타일 역시 같은 섬세한 정밀함을 따른다. 미묘한 대비와 정제된 비율,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여유를 통해 표현되는 그의 스타일은 불필요한 과장 없이 세련된 감각을 완성한다. 클래식한 코드와 예상치 못한 디테일 사이의 균형을 통해 로버트 패틴슨은 우아함에 뚜렷한 개성과 자신만의 색을 더한다. 이러한 창의적 자유와 대담한 자기표현은 절제와 고유의 개성을 통해 세련미를 구현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미학적 가치와 공명한다.

개성이 이끌어온 여정

로버트 패틴슨은 스크린을 넘어, 지금까지의 여정을 만들어온 가치들로 정의되는 인물이다. 호기심과 진정성, 탁월함을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바탕으로 그는 관습이 아닌 신중한 선택을 통해 커리어를 구축해왔다. 그의 가치관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기 규율이 함께한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때마다 이전에 이룬 것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그 너머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접근한다. 즉각적인 주목보다 오래도록 남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가 그의 작품에 독보적인 개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예거 르쿨트르가 추구해온 철학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메종은 탁월함을 하나의 목적지가 아닌, 끊임없이 정교해지는 과정으로 바라봐 왔다. 그 과정에서 기술적 숙련과 혁신, 장인 정신은 지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진정성에 뿌리를 두고 끝없는 호기심으로 나아가는 예거 르쿨트르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진정한 탁월함은 헌신과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완성된다는 공통된 믿음은 창의성뿐만 아니라 고유한 개성을 바탕으로 한 이번 파트너십의 토대가 된다.

예거 르쿨트르 CEO 제롬 랑베르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로버트 패틴슨은 예술적 깊이와 호기심, 진정성을 독보적으로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의 여정은 탁월함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과 독립적인 정신으로 정의되며, 이는 메종의 가치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로버트 패틴슨을 예거 르쿨트르 패밀리로 새로운 일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업은 예거 르쿨트르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며, 독보적인 비전과 창의적 독립성, 절제된 카리스마를 통해 메종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아티스트와 함께 동시대 문화와의 대화를 더욱 확장한다. 두 존재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스타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나가려는 공통된 본능이다. 로버트 패틴슨은 오는 9 월 중순 공개될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로버트 패틴슨 소개

독보적인 존재감과 대담한 작품 선택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아온 로버트 패틴슨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개성 있는 영국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영화 <트와일라잇(Twilight)> 시리즈의 에드워드 컬렌 역으로 주목을 받은 그는, 이후 자신만의 독창적인 커리어를 구축해왔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조시 & 베니 사프디, 클레르 드니, 로버트 에거스, 크리스토퍼 놀란, 매트 리브스, 봉준호, 린 램지, 드니 빌뇌브,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등 세계적인 감독들과 협업하며 자신만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이어왔다. 대표작으로는 <굿타임(Good Time)>, <하이 라이프(High Life)>, <라이트하우스(The Lighthouse)>, <테넷(Tenet)>, <더 배트맨(The Batman)>, <미키 17(Mickey 17)>, <더 드라마(The Drama)> 등이 있으며, 작품마다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호평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디 오디세이(The Odyssey)>에 출연했으며, 차기작으로는 드니 빌뇌브 감독의 <둔: 파트 3(Dune: Part Three)>, 랜스 오펜하임 감독의 <프라임타임(Primetime)>, 그리고 덴젤 워싱턴, 데이지 에드거 존스와 함께한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감독의 <히어 컴즈 더 플러드(Here Comes the Flood)>가 공개될 예정이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로버트 패틴슨은 프로덕션 회사 이키 에네오 알로(Icki Eneo Arlo)를 설립해 프로듀서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A24 의 <프라임타임(Primetime)>과 <더 샤프론스(The Chaperones)>의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파커 핀 감독의 <포제션(Possession)>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워너브러더스 픽처스, 뉴 라인 시네마, 소니/컬럼비아 픽처스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스튜디오 영화와 독립영화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배우이자 프로듀서로서 로버트 패틴슨은 대담한 창작적 선택과 세계적인 감독들과의 협업, 그리고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